

14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지구화와 젠더 불평등¹⁾

조희원
경희대학교

< 목 차 >

- | | |
|-----------------------------|------------------------|
| I. 서론 | 1. 문화산업의 지구화와 위계적 성별관계 |
| II. 지구화의 배경과 의미 : 지구화와 반지구화 | 2. 경제적 지구화와 주변화된 여성 |
| III. 지구화의 젠더적 의미 | 3. 이주여성의 지구화와 젠더 문제 |
| 1. 지구화 과정과 여성 : 위기와 기회의 공존 | V. 결 론 |
| 2. 지구화와 공사영역의 변화 | 참고문헌 |
| IV. 지구화와 젠더 불평등 |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지구화(globalization), 여성(woman), 여성주의(feminism), 주변화(marginalization), 젠더 불평등(gender inequality)

국 문 요 약

세계는 국경을 초월해 하나의 상호의존적인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는 지구화 과정을 겪고 있다. 냉전붕괴, 교통수단의 발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각국 경제의 자본주의화 등에 힘입어 진전되어 온 지구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지구화는 우리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뿌리 내린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지구화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고 양성평등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들이 여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며, 지구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젠더 불평등의 현상을 여성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설정과 정치적 전략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 서론

이제 지구화(globalization)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냉전붕괴, 교통수단의 발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각국 경제의 자본주의화 등에 힘입어 진전되어 온 지구화는 이제 우리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뿌리 내린 현실이 되었다.

지구화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발전, 특히 국제연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국제

1) 이 연구는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적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NGO의 양적 팽창, 활동 영역 및 방식의 변화, 영향력 확대 등에서 잘 나타난다. 오늘날의 글로벌 NGO들은 환경, 여성, 인권, 난민, 기아, 개발, 평화와 정의 등 개별 정부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국가적 기구들이 방관하고 있는 지구촌의 당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위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다양성 속의 통일(unity in diversity)을 구가하는 초국적 사회운동으로 이전의 계급운동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조형 2002, 51). 일반적으로 지구화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활동이 국경을 가로질러 확장되어 세계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결정·활동이 다른 먼 지역의 개인과 공동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헬드 2002, 36). 세계는 정보통신의 혁명, 교통수단의 발전, 국경없는 새로운 경제시스템과 초국적기업의 등장과 더불어 변화되고 있으며, 첨단무기산업의 발전, 환경파괴, 인권침해, 전쟁, 빈곤의 심화와 같은 전지구적 차원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하나의 지구공동운명체가 되어 가고 있다. 문화의 다양화와 공유를 통해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지구화 시대에는 인권, 평등,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요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구화는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비판적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화 과정에서 여성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여성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공유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과연 지구화는 여성들에게 어떤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구화의 진전이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지구화 논의에서 벗어나 여성주의 관점에서 지구화과정을 바라보고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구화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지구화가 갖는 젠더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 또한 지구화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젠더 불평등의 현상을 문화산업의 지구화와 위계적 성별관계, 경제적 지구화와 주변화된 여성, 이주여성의 지구화와 젠더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지구적 흐름들을 여성들은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그 흐름이 함축하는 성별적 제한점과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II. 지구화의 배경과 의미 : 지구화와 반지구화

세계는 국경을 초월해 하나의 상호의존적인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는 지구화 과정을 겪고 있다. 기든스(A. Giddens)는 “지구화는 지방들 상호간의 사회적 관계가 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어 어느 한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형성하고 형성 받는 현상”이라고 하였다(Giddens 1990, 64). 특히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이제는 그 누구와도 접촉할 수 있게 되었고 자본의 결제와 이동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시·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이 일어나게 되었다(Harvey 1989, 240). 실제로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지역, 도시, 국가의 경계망을 철새없이 넘나들고 있는 오늘날에는 시차가 있는 지구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들도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으며 직접 가지 않더라도 화상회의를 통해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고 이메일을 통해 멀리 떨어진 친구, 친척들에게도 안부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인터넷과 같은 의사소통수단의 등장은 국가 내에서 활동하던 NGO들의 활동영역을 지

구적 수준으로 확대시켰고, 이들은 지구화의 진전 후 나타난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Mathew 1997). 지구적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인류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일국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서 초국적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지구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비물질적 차원의 교류와 접촉 뿐 아니라 막강한 초국적 자본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노동 조건에 의한 물질·인적 차원의 교류와 접촉을 가져왔다. 인적 노동력은 보다 좋은 노동 조건과 임금 조건을 향해 국경과 지역을 넘어 문화적·관습적 가치들의 교류와 접촉을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구적 자본은 국민국가의 경계에 머물지 않고 필요에 따라 쉽게 이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구화의 양상은 한국사회 안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 점차로 확대되는 이주 노동자의 문제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리고 지구화의 흐름이 우리의 생활세계에 침투한 가장 대표적인 새로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구화는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과 더불어 부를 향한 노동 인구의 이주를 확대한다(이상화 2005, 52). 이처럼 늘어가는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력은 노동조건과 노동문제의 변화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유입된 다양한 문화와 관습은 우리의 가치 체계에 다원성을 요구한다. 비록 우리와는 다른 피부색과 낯선 언어를 쓰기도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지구화는 한편으로 정치, 경제 및 사회적 활동의 범위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들 및 사회들 내부 사이에 상호작용과 상호연관성의 수준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지구화 경향에서 자유로운 사회영역은 없다. 정치, 경제, 문화, 법, 군사 및 환경에 이르기까지 지구화 경향은 전 사회영역에서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화과정은 반지구화과정을 통해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지구화는 모든 인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계를 위해 중심과 주변의 구분 및 차별에 도전하는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심화, 획일적인 소비문화의 범람, 인구폭발, 환경오염, 자원고갈, 인종분규, 외국인 노동자문제, 초국적인 마약밀매와 범죄 등과 같은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지구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반지구화 논의는 지구화 과정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 중심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전파되어 지역의 전통적인 공동체를 파괴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공동체가 사라지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다(Cavanagh et al. 2002). 예를 들어 지구화는 생산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인류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혹한 경쟁의 결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켜 계층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지구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 나르(Narr)와 슈베르트(Schubert)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지구화의 사회적 핵심은 불평등의 생산이다. 지구적인 파편화는 올바른 경제정책에 의해 극복될 있는 세계경제의 우연한 사건이 결코 아니다. 전지구적인 생산, 서비스, 상업, 금융과정들의 단일화의 반대편에는 이로부터 탈락된 자들의 수백만 번 찢긴 운명들이 놓여 있다. 이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출발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 기업들, 국가들이 경쟁하는 세계경제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이윤과 권력의 기준 외에는 어떤 사회적 가치들도 효율성의 시험에서 인정되지 않는 상황 아래서 경쟁자들은 승리자와 패배자로,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로 특권을 누리는 자와 권리를 박탈 당한자로 나뉘 수밖에 없다”(Narr·Schubert, 구춘권 역 2000, 19 재인용). 다시 말해 지구화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라기 보다는 전지구적인 불평등의 확산을 통한 세계경제의 위계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반지구화 논의는 인권과 환경문제가 선진국 혹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오히려 훼손되기 있기 때문에 지역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지역 정부가 자원 및 정책결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지구화 논의와 맞서고 있다. 특히 지구화에 저항하는 강력한 대항세력으로 성장해 온 시민사회는 지구화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영역을 확장시켜 왔다.

지구화는 다원성과 획일주의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지구화는 획일화된 경제적, 문화적 논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전통의 공존을 현실화하는 가능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은 지구화가 경제논리의 측면에서 획일주의적 성격을 내포하지만 더불어 지구화의 진행이 불가피하게 전지구적인 다원성, 다양성의 공존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한 현실을 보여준다.

Ⅲ. 지구화의 젠더적 의미

1. 지구화 과정과 여성 : 위기와 기회의 공존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지구화 과정을 통해 법적인 지위와 가족 및 시민사회 내에서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장되었으며 개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증가하였다고 평가되어진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그동안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계의 국제적인 연대, 국제기구의 압력, 국내 선거에서의 여성 투표의 힘을 고려한 정부의 대응은 여성의 평등권, 모성적 권리 등을 보장하는 각종 법제도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또한 정보화를 수반한 지구화는 정보 관련 직업의 다양화와 함께 각종 서비스 업종을 생성시켜 이전에 비해 더욱더 많은 여성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유연성을 그 핵심적 가치로 하고 있는 정보화는 역시 섬세함과 유연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여성의 시장적 가치를 높였고, 지구화와 정보화는 여성의 시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 각 부문에서 최고의 지위까지 상승한 여성 리더들이 등장하고 여성 창업자들도 증가하였다.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기혼여성, 유자녀 여성들의 유동적인 노동시간 활용을 가능케 하여 시장에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들이 이러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부 여성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어렵다(조형 2002, 61).

여성 고용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주목받는 성장으로 평가 받아왔다. 여성 고용의 증가가 중요한 이유는 경제발전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변화시켜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Harcourt 2005). 실제로 지구화의 진행에 따라 양적인 측면에서 고용은 증가해 왔다. 그러나 고용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심각한 질적 저하가 수반되는 노동의 유연화가 진행된다. 노동의 유연화는 여성의 문제와 연결되면 다시 한 번 재구조화되어 비공식부문에서의 고용 증가, 여성의 가정내 노동 부담의 증가, 토착지역 농민여성 노동의 박탈로 나타난다(Desai 2002). 즉 여성들은 지구화 과정을 통해 노동 시장의 진출을 이루었지만 대부분 비숙련부문에 집중되었고 더 많은 노동의 부담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즉 여성의 고용은 시장의 핵심부분이 아닌 주변부나 비공식 부문에서 증가할 뿐이었고 여전히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이중부담은 증가한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는 오히려 성별

분업의 해체보다는 새롭게 강화되어 가는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다(문현아 2006, 5-10). 이러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후퇴의 조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성장이 진행된다고 하여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세계적인 경영자문화사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34개국의 지구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지구화 속도가 빠를수록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며, 지구화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지수가 높다고 한다. 이것은 지구화의 진행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지만 소득 분배에 있어서는 불평등과 빈곤층의 상대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구화의 긍정적 영향으로 경제 성장, 민주화, 사회복지 확대를 들고 있고 부정적 영향으로는 소득 분배의 불균등 문제, 부정·부패의 심화문제, 환경문제를 들고 있다(Kearney 2000). 따라서 지구화는 전 세계적 상호의존을 심화시켜 평화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분쟁의 증가를 우려하기도 하고, 친환경적 실천의 확산을 기대하는가 하면 생태 위기의 심화를 우려하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한다. 이러한 지구화의 모습은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즉 전 지구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지닌 효율성을 극대화할 경우 민족국가 시대를 마감하고 초국가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는 여성들에게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입장이 있다. 반면에 지구화는 오히려 여성들의 낙으로 인한 소외를 증폭시키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형평성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여성들의 빈곤과 불평등을 더욱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이 있다(노성숙 2002, 195). 즉 지구화는 여성들에게 기회이면서도 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²⁾

여성들은 여전히 지구화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동원될 뿐 지구화 과정의 핵심세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구화를 통해 여성고용의 양적 확대는 가져왔지만 고용의 질과 이에 따른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개인적인 여성들의 노동 참여의 양적 증가만으로는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지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더 불평등의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불평등을 수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지구화와 공·사영역의 변화

- 2) 특히 김선옥은 지구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구화 논의에서보다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더 많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①초국적 기업들이 값싸고 유동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므로 현재의 값싼 노동력으로서 여성 노동력의 기회는 늘어난다. 그러나 이들은 임시직, 파트타임, 가내노동자 등 대부분 불안정 노동자들이 된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국제경쟁력을 위한 여성 노동력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세계경제체제에서 국가간의 국제적 관료정치 구조는 많은 부분 기업적, 상업적 기구에 도움이 되도록 조정되며 여성은 개인으로서 노동력 제공자일 뿐 여성의 집단적 영향력은 오히려 무시된다. ②여성들은 여전히 문맹, 기술부족, 신용부족, 정보부족, 성적 차별, 가사, 육아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등 기존의 여성문제로 인하여 지구화가 가져다 주는 전반적인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를 받고 있다. ③지구화가 가져오는 빈부의 격차는 잠재력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 받지 못하는 최빈곤층의 문제를 가져오는데 빈곤층의 다수가 여성이므로 빈곤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이다. ④지구화는 국가 역할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동안 규제자, 사회적 형평의 보장자로서의 국가 역할은 비규제적이 되고 자율적인 세계 경제를 원활하게 하는 보조자로 역할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재원을 분배하는 능력이 약화되어 건강, 교육, 사회적 안전과 같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비용을 줄인다. 이러한 공공관련 지출의 감소는 재생산에 대한 지원을 줄이게 되는데 이는 다시 여성개인의 부담이 되므로 성적 재분배가 후퇴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지출의 삭감으로 인하여 사회적 프로그램이 중단된 경우에 그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여성의 무임금 노동에 의존할 우려가 있다(김선옥 2002, 69-70).

지구화의 진행과 더불어 국가 단위의 시장이 세계자본주의의 시장에 통합되고 세계적 거버넌스의 출현으로 각 국가와 정부의 주권 개념이 흔들리고 시민사회 또한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가족과 개인의 삶은 세계적 변화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단위의 공사 영역 개념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따라서 사회체계에 관한 논의들에서도 공사영역의 구분보다는 세계-지역, 시장-국가, 지식-정보-물적 자본, 시민-소비주체 등의 다른 대비 개념들을 더 자주 접하게 되었다(조형, 2002, 24). 리스터(R. Lister)는 공사 개념의 분리는 유동적일 뿐,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Lister, 2000) 엘슈타인(J. B. Elshtain)은 공사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는다고 주장하였다(Elshtain 1981). 따라서 지구화현상과 더불어 공사 구분이라는 오랜 통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사개념의 성별화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더불어 지구화의 진행으로 인해 공사 영역 경계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구화의 흐름 가운데서도 국가, 내국시장, 가족 등 근대적 제도들의 기능이 상존하며 이것들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과 구분되고 있다. 또한 현실 사회에서 일국 내의 사회영역으로서의 공사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공사 구분과 성별 구분을 동일시하는 인식은 지구화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의 상징적 권력(symbolic power)을 행사하면서 여성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 영역 개념이 여성의 관점에서 관심에서 관심을 끄는 이유는, 개관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그 구별 기준이 이중적이고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영역=남성, 사적영역=여성의 등식으로 표현되는 성별화 개념으로 진화되면서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공사 구분의 성별화는 공간과 활동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의식과 행위,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키는 사회, 제도적 장치들을 통하여 성별분리 구조를 재생산하고 여성들의 온전한 시민권을 제한하는 기제로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사회적 공간을 남녀라는 성적 구분과 동일시하는 상징을 통하여 공사 구분이 마치 자연스러운 분리인 것처럼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여성들이 활발하게 가정 밖 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참정권을 포함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기 시작하면서 성별화된 공사 개념에 혼선이 일기 시작했다. 또한 각종 정책을 통한 국가의 사적 영역 침투가 증대되면서 공사 영역 분리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특히 성별화된 공사의 경계는 남녀 간의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 과거에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던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문제들이 여성들의 정치적 세력화의 결과 '공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공적권력이 개입하게 된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본질적 영역으로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역사문화적 조건하에서 '공적으로 간주되는' 영역과 '사적으로 간주되는 영역'이 있을 뿐이다(조형 2002, 11-13).

무페(C. Mouffe)는 성별이나 공사 구분을 미리 결정된 이차적 범주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성에 관계없이 개인들의 삶은 인종과 민족, 계급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힌 다중적 단층(multiple-tier)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Mouffe 1993). 또한 오킨(Susan M. Okin)은 공사 개념은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각각의 영역이 양과 껍질처럼 중첩되어 있다고 보았다(Okin 1991). 영(B. Young)은 지구화 시대에는 기존의 남성이장이 중심이 되는 임금체계가 아니라 맞벌이 형태의 가족이 중심을 이루게 되어 공사영역과 생산·재생산 영역의 구분이 남성과 여성으로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공적·사적영역의 젠더분리가 이제는 더이상 통용되지 않으며 기존의 구분 체계를 새롭게 구조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하는

모델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Young 2001).

이처럼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게 된 배경에는 (남성)실업의 증가와 노동이라는 힘의 약화 그리고 각종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라는 변화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Moghadam 2005, 7). 한국사회에서는 1997년 경제 위기로 인한 남성 실업의 증가와 노동의 유연화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은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 하향화 추세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가장인 남성의 실업에 뒤이어 진행된 여성들의 노동시장진출은 대부분 비공식 부문 혹은 가사노동의 확장된 형태로 나타났고 이러한 지구화 이후 대두하게 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기존의 공사구분이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는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문현아 2006, 6). OECD의 보고서에서도 점점 더 많은 여성과 남성이 노동 시장과 가정의 책임이라는 이중의 모순에 직면하게 될 것을 예측했다. OECD의 보고서는 개인의 수준에서 고용과 가족 책임에 대한 양립성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여기에서 가족과 고용의 역할 공유가 잠재적 노동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젠더 평등과 삶의 질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OECD 1994, 19).

지구화시대에 있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서로 독립적이거나 관계가 없다고 가정하는 논리는 오류이다(O'Connor et al. 1999). 또한 이러한 오류가 모든 사회영역에서 성별 권력관계와 불평등의 근원을 모호하게 하고 여성의 억압과 종속을 정당화해 온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적영역에서의 활동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시민성은 성중립적(gender-neutral)인 것이 아니라 남성적 덕목들로 구성된 남성 중심성을 내포하고 있다(Pateman 1989). 남성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분리되어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공사 영역간의 상호의존성을 드러내고 재구조화해야한다(Lister 2000). 또한 정치의 개념을 일상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적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켜 비정치적인 것으로 배제되었던 영역까지도 정치적 장으로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IV. 지구화와 젠더 불평등

1. 문화산업의 지구화와 위계적 성별관계

이제 지구화의 물결은 이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컴퓨터를 매개로 한 정보통신 발달과 지구화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초국가적 문화산업을 생산하고 또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지구화가 주로 국제적인 시장경제의 차원에서 무역의 형태로 가시화되고 또한 국제적인 노동력의 이동으로 현실화되는 반면, 문화적 차원에서는 보다 우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수자 2006, 39). 문화산업은 자본주의가 경제적인 이윤창출을 위해 문화를 적극적으로 시장의 영역에 편입시킴으로써 등장했다. 자본주의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그 이윤 획득을 증대시켜 감으로써 성장해 가게 되어 있다. 초기 자본주의는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산업사회의 기반이 되는 생산의 원료, 노동력 등을 공급받을 뿐 아니라 생산물들을 직접적으로 내다팔 수 있는 소비시장을 확장시켜 갔다. 반면에 오늘날의 후기 자본주의는 더 이상 가시적인 공간 확보를 통한 시장 확대가 아니라 이전에 시장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던 영역들 예를 들어 스포츠, 예술 등을 적극적으로 끌어 들임으로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노성숙

2002, 202). 지구화는 자유로운 자본의 의미로만이 아니라 지역문화나 전통적인 고유문화가 세계적 문화와 만나 뒤섞이면서 전지구적이고 다양한 지구적 차원의 문화를 재생산해 낸다.

홀(Hall)의 지적처럼 지구적 차원의 문화산업은 시간과 공간이 통합된 지구위에 문화혼성성과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변형시키고 새롭게 재생산 시킨다(Hall 1994). 하지만 문화적 지구화로 인해 지역적 특성과 전통, 그리고 역사가 반영된 문화 다양성이 강조되고 중요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구문화의 일방적인 침투로 획일화되어 나타난다. 문화산업의 지구화는 인간의 내면을 깊숙이 지배하고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문화적 파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영화나 TV드라마의 대중매체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컴퓨터를 통해서 전달된다. 이들 매체를 이용한 문화산업은 때로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지니면서 전지구적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정체성과 이미지 등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이수자 2006, 40).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아도르노(T. W. Adorno)와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는 문화가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산업화되는 과정을 매우 비판적으로 파악했다(Adorno & Horkheimer 1984). 그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획일적인 문화상품들을 대량 생산해 내고 대중들이 그 상품들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대중문화가 형성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경제·정치와의 연관성 속에서 분석했다. 대중문화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문화산업을 통해 생산을 전체주의적으로 독점하면서 문화를 상업화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문화산업의 자본주의적 생산은 항상 동일한 것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 대중들을 공략한다. 문화산업의 획일적인 생산물은 대중들의 여가시간을 전적으로 점유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주로 자극적인 오락거리들이다. 대중들은 이러한 획일적 문화상품이 제공하는 유희에 자신들을 쉽게 내맡기며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을 취하고자 한다(노성숙 2002, 202). 그러나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에 의하면 이러한 여가시간의 유희산업은 대중들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되새김질 시킨다. 그리하여 대중들은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그 배후의 경제적,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지배이데올로기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도록 길들여진다. 즉 대중들은 자율적인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손쉽게 지배체제에 흡수·통합되는 것이다. 대중들이 문화상품들을 즐긴다는 것은 곧 “항상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 고통이 눈에 보여도 곧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다”(Adorno & Horkheimer 1984, 167). 따라서 문화산업에 의해 문화가 장악되고 있는 것을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비판하는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문화산업이 대중들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내면적인 의식 세계를 획일적으로 파괴하며 그들을 기만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저항하지도 않거니와 부정적 사고는커녕 아예 아무런 사고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노성숙 2002, 203-204).

우리사회는 유명 상품들의 세계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리처(G. Ritzer)는 ‘사회의 맥도널드화(McDonaldization of society)’라고 표현한다. 맥도널드화란 패스트푸드점의 원리가 미국사회와 그 밖의 세계에 더욱더 많은 부분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리처 2000, 22). 즉 리처의 맥도널드화는 세계의 문화가 단일하게 통합, 수렴되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주체적인 소비자를 온순한 순종자 내지 유순한 동참자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수량화된 효율성, 계산 가능성, 예측 가능성과 함께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의 질서까지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저항없이 순응하는 세계를 창출해 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문화나 지역적 정체성은 사라진 채 다국적 기업의 광고와 이미지들 등에 업고 있는 획일적인 문화상품들이 문화의 보편적인 상징들로 자리 잡고 소비자들을 통해 소비됨으로써 마침내 전지구적인 문화의 동질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노성숙 2002, 210). 즉 문화산업의 지구화는 다양성과 상호개방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획일적인 상품세계로 보편화시킨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지역문화와 지역 정체성은 사라지고 다국적 거대기업의 이미지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지구적 차원의 문화산업은 서구의 생활양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영화나 TV드라마, 광고, 명품, 잡지, 음반, 컴퓨터 게임, 포르노그라피의 확산은 실제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여성의 이미지와 젠더관계가 글로벌 문화산업을 매개로 하여 가장 극명하게 강조되어 드러나고 있는 범주는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다. 모바일 분야의 경우에는 게임보다도 유료 동영상의 폐해가 심각하고, 더욱이 지구화의 극심한 부정적 결과로서 등장하는 해외 서버 이용으로 규제의 권역 밖에 있다. 게임 캐릭터로 재현된 여성의 이미지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부합하는 순응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기존의 순응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외형적인 면에서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기대하는 몸 이미지를 갖춘 모습으로 재현시킨다. 또한 지금까지 남성적 가치로 인식되었던 공격성, 전투성, 그리고 총기류를 능란하게 다루는 기술 등을 보유하며 빼어나게 아름다운 얼굴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 가는 허리, 늘씬 한 팔다리까지 현대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기형적으로 성적 매력을 강조한 몸매를 만들어 내고 있다(이수자 2006, 53).³⁾

다양한 매체들과 그 매체들의 통합이 쏟아내고 있는 새로운 문화상품들의 구성 방식은 예전에 관습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대조를 해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화적 상징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여전히 여성들의 물화를 통한 성상품화의 소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는 상품화됨으로서 그 선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여전히 활용되고 있으며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대중 매체들도 역시 성별관계의 재생산을 통해서 성불평등을 낳는 가부장적 문화권력을 확장시켜 가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노성숙 2002, 214). 다시 말해 문화산업의 지구화는 은폐되어 있는 성별관계를 통해 가부장적 문화의 권력관계를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더욱이 문화상품의 속성은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감성, 욕망, 충동의 구조까지 은밀하고도 철저하게 지배한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경제적 자본에 의해 과잉생산된 상품들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으로, 즉 자본의 이윤추구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인터넷의 새로운 상거래망의 희생양이 되어 과잉 욕망의 소비자로 길러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B. Young)의 지적처럼 문화산업의 지구화는 자본주의적인 경제적·정치적 지구화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진행되며 “철저하게 성별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Young 2001)임을 알 수 있다.

지구화와 함께 기술이 담고 있는 경제적·정치적 지배력은 더욱 증대되었으며 문화산업의 생산에서도 기술이 지니는 지배력의 강도는 오늘날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세계는 더욱 획일적으로 통합되고 총체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기술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지구화에 있어 위계적 성별관계를 강화시키는 구조를 생산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것은 여성의 능력을 확장시킨 점에서는 변화로 볼 수 있으나 몸 이미지에 있어서 섹슈얼리티가 강조된 에로티시즘을 강조하면서 남성게이머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극히 피동적인 관계에 놓인다는 점이 여전히 젠더 정체성의 전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이수자 2006, 54).

2. 경제적 지구화와 주변화된 여성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지구화의 가장 큰 변화는 금융과 자본과 같은 경제적 지구화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지구화는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혁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자본의 지구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생산과 소비의 국제적 분업화와 통합이 용이해졌고, 인터넷이 전세계에 보급되면서 컴퓨터내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전자화폐는 새로이 전지구적 전자경제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인터넷의 전지구적 확산과 더불어 인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접속 가능하게 되었으며 자본의 결제와 이동이 자유롭게 되었다. 이러한 지구화의 과정에서 노동시장은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외적으로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지역적 소속감을 박탈하고 경제적인 이주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내적으로는 국가 단위의 경제적 통제를 벗어나 대기업 산하의 개별 기업들이나 기업내 각 팀들 또는 개인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와 같은 집단적인 공동운명체로서의 국가개념이 해체되고 각 개인들 간의 계약관계를 통한 무한경쟁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가 가져온 금융과 자본의 지구화와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목하면서 우리는 지구화 과정이 과연 이전의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성차별적 환경과는 결별을 하고 조금은 나아진, 아니 새로워진 성평등적인 사회를 열어가고 있다고 낙관할 수 있을지 물어보아야 한다(노성숙 2002, 196-197).

지구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본주의는 과학 기술과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새로운 정치, 경제의 질서를 낳고 있다. 전면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만을 도입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 빈부의 격차가 대두되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여성들은 대부분 빈민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정보산업 분야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은 국제자본화한 중심부의 남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이득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주도권을 갖게 한다. 반면에 비숙련된 여성들은 그러한 정보기술과 경제적 자본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하게 만들고 더욱 주변화된 존재로 밀려나게 된다.

여성들은 근대화 과정 속에서 기술을 통제할 수 경제적 주체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지구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정보기술과 과학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지배력은 남성들에게 편중되어 있다. 또한 국가개입의 축소·해체와 세계적 시장의 확산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줌으로써 이러한 경제적인 지구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기술들에 의한 노동 환경 속에서 성별분업체제와 남성들의 권력집중현상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성들의 종속과 빈곤화는 더욱 심각히 드러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대부분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거나 아예 컴퓨터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정보, 과학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실업자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화 교육을 받은 소수의 전문직 여성들도 역시 기술의 핵심부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가부장적 자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지구화에서 주변화 되어 있다(노성숙 2002, 207-208). 지구화 과정에 있어 정보기술과 과학기술에 대한 지배력은 이제까지 남성에게 편중되어 왔고 성별분업체제와 남성권력 집중현상을 강화시켜왔다. 이런 과정은 노동 과정에서 여성을 무력화 시키고 여성의 지속적 종속과 빈곤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여성노동력의 지구적 이동과 여성노동의 주변화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전가시키며 오히려 가부장제와 같은 성별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노동통제를 강화해 나간다(양민석 2004, 151).

최근 20년 동안에 여성의 취업률이 36%에서 40%로 증가했다는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세계은행은 여성들이 경제적인 지구화의 승자들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최근의 지구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참여율이 양적으로는 증가되었지만 노동 환경이 여성 우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근대화의 성차별적 요소들과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지닌 불안정성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오늘날 경제적 지구화도 역시 성별관계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여성 취업의 증가가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함께 진행되지 않는 한 노동 분업에서 나타나는 성별관계의 고착화와 여성들의 주변화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정보기술에 의해 작업환경과 노동 참여 방식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서 21세기에는 여성친화적 노동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정보화로 인해 노동의 유연성과 분화가 증대됨으로써 재택근무 등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노동을 통한 경제적 참여를 증대시키고 노동 시장에서 여성 노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여성은 컴퓨터의 편리함을 이용하기에 앞서 컴퓨터를 구입할 수 없는 취약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실업의 위기에 처해 있는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정보화 교육을 받은 소수의 전문직 여성에게는 성별분업의 의미가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조금씩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남성 중심적인 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정보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핵심에 있지 못하고 그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정보화를 둘러싼 노동 환경의 변화들 속에서 여성들 간의 계급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을 주시하고 이를 여성들 간의 연대를 통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매우 심각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성별관계를 확대 재생산하는 세계적 시장 경제의 위계적 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성숙 2002, 197-199).

제3세계에서 실시된 구조조정정책(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은 여성의 인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멕시코 정부는 임금을 삭감하여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자본의 유동을 유인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가시화되지 않았다.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1984년부터 1989년까지 남성도시노동자에 대한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77%에서 72%까지 하락하였고 남성임금의 80%에 달했던 여성의 산업임금은 57%까지 떨어졌으며 공공부문을 비롯한 다른 영역에서 여성의 일자리 공유는 42%였던 것이 35%로 감소되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자 멕시코 여성들은 사회적 혜택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자체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같은 사태는 미숙련 여성노동자들에게는 더 타격이 컸고 결국 여성 인력구조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였다(Anastasakos 2002, 119). 매우 빈약한 인구를 기반으로 농업에 치중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니제르는 SAP가 시행된 이후 임금노동이 점차 발달하기는 했지만 여성들이 교육과 임금노동에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불리하였다. 또한 여성 기술 도입의 원천이 보통 저임금이면서 소득이 불규칙적인 비정규직에 머물렀기 때문에 여성임금의 증가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Creevey 2002).

스파르(Pamela Sparr)는 제3세계여성에게 취해진 구조조정 결과 남성보다 많은 여성들의 실직, 여성들의 작업 조건 퇴보, 남녀의 임금차이 증가, 공공부문 고용의 기회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사적 부문 유입,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빈곤이 심화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수출이 증가하지만 여성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가구주 구조의 변화 속에 여성가

구주가 증가되었고, 여성의 무임 노동 증가, 여아 교육의 정체, 식량 소비 감소, 여아 건강과 사망률 악화, 저출산, 가정폭력과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Sparr 1994). 엘슨(Diane Elson)은 구조조정정책은 국가의 공적 서비스를 축소시키고 여성이 임금노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데 이는 성맹적(gender-blind)이며 성왜곡(gender-biased)이라고 주장하였다(Elson 2001).

세계은행과 IMF는 구조조정정책에 있어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 사회안전망, 또는 비상시 구제기금 등을 제공하였으며 특정집단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를 감소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취약집단들을 목표로 한 이와 같은 일련의 사회 안전조치들은 여성들에게는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성인지적인 젠더정책이 아닌 전통적인 젠더 역할 속에 여성을 단순히 구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을 뿐이다.(Anastasakos 2002, 124).

한국의 경제적 지구화는 1998년 대규모 실업사태와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나타났다. 전체노동자 중 임시노동자의 비중은 1990년 17.5%에서 1999년 20.6%로, 일용직 노동자는 5.8%에서 11.3%, 시간제 노동자는 3.2%에서 6.8%로 증가하여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38.7%가 비정규직 취업자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임시직화가 남성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었다.⁴⁾

그러나 여성노동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성부(2001)의 한 조사에 의하면 결혼 후에도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스스로 경제력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고, 전문적 경쟁력이 중시되는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강화되고 있는 능력 중심주의로 변화되면서 성별기준이 무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벤처 창업으로 기업경영인이 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언론의 홍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조형 2001, 207).

3. 이주여성의 지구화와 젠더문제

흔히 이민으로 이해되는 국가 간 인적 자원의 교류는 최근 지구화 경향에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국제적으로 이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오늘날 1억 2천 5백만이라는 거대한 수의 인구가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World Bank 1995 55, 김미경 2004, 35 재인용).

지구화의 현상과 더불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이주는 국가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들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21세기의 이주가 점차 여성화되고 있는 까닭은 전형적으로 여성의 일로 취급되던 돌봄 노동, 즉 가사, 육아, 노인 및 환자 봉양과 유흥산업관련 노동을 하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국경을 넘기 때문이다.⁵⁾ 즉 선진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기회가 증가하면서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여성의 일’을 후진국 이주여성들이 맡기 때문이다. 이주여성들은 아이 돌보기, 집안일 하기, 노인 간호하기 등과 같은 가사관련 일에 종사한다. 특히 파레나스(Parrenas)는 필리핀인 여성가사노동의 초국적(trasnational) 이동을 “돌봄노동의 국제적 이동(international transfer of caretaking)”으로

4) 1999년 상반기 임시직에서 상용직으로의 수평이동은 남성과 여성 모두 30%전후에 그쳤고 상용직에서 임시직으로의 하강 이동은 남성은 25.4%에 불과한데 반해 여성이 43.0%나 되었다(김태홍, 2000).

5) 특히 필리핀의 이주노동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90년대에 급격히 늘어 21세기에 70%를 넘게 된 것은 지구화 시대에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여성들 가운데 필리핀 여성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제조업 분야의 생산직 노동자로, 혹은 유흥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의 필리핀 여성노동자들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신은영, 2006).

설명한다(Parrenas, 2001).

지구화가 진전되면서 여성의 이주가 이전에는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남편을 따라 가던 것에서 여성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주의 주요 원인은 빈곤이며, 이주자는 이주를 통하여 삶의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다(신은영, 2006). 2004년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아시아계는 전체 29만 7천 773명 가운데 27만 9천 951명으로 94%이며 이 가운데 여성은 8만 5천 660명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 규모는 18만 7천 946명 중 아시아계가 17만 6천 83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가운데 여성이 5만 9028명으로 33.4%에 이른다(한국염 2004).

지구화로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넘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국가간 이동은 국가의 불균등한 경제발전, 계층,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와 같은 요소들이 지역사회의 구조와 요구에 다양하게 반응하고 포섭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후진국 여성의 초국가적 이주는 국제노동시장에서 젠더와 여성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진유되는가를 보여준다. 국제노동시장에서 저렴한 후진국여성의 노동은 제3세계 국가 내에 세워진 자유무역지역에서 훈련되어진다. 말레이시아, 상하이, 라틴 아메리카 등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생산직에 현지 여성노동력이 활용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제3세계여성들은 선진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유흥업, 섹스산업 등에 종사하거나 현지처, 국제결혼 신부의 형태로 성적 서비스와 재생산 노동을 제공한다.⁶⁾ 선진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유흥업에 종사하거나 호주, 미국, 한국 남성들과 결혼하는 여성들이 이에 속한다(윤형숙 2005, 129-130).

지구화 시대에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한국의 이와 같은 이주여성의 실태는 지구화시대에는 이전의 남성 가장 중심의 임금형태가 아니라 맞벌이형 가족이 중심을 이루게 됨으로서 공적·사적영역과 생산·재생산영역의 구분이 남성·여성으로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사노동자, 혹은 간호사, 개호사 등으로 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구소련에서 보다 잘 사는 북미, 서구, 아시아 공업국으로 이동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젠더 연구나 이민 연구의 한 영역으로서 유상 돌봄노동에 관련된 여성의 이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성과들도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다(Heyzer et al. 1994; Monsen 1999; Parrenas 2001; Ehrenreich and Hochschild 2003). 실제로 현재 많은 조선족 여성이 한국에서 돌봄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돌봄 노동의 국제분업과 이주의 여성화가 한국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돌봄노동의 국제분업은 이주의 여성화에 의한 결과로서 돌봄노동을 구입하는 선진국 여성과 그 세대 이주 돌봄 노동자, 그리고 이주 돌봄 노동자가 본국에 남겨 놓고 온 자녀들을 돌보는 여성친족 혹은 유상 돌봄 노동자라는 3층 구조를 만들어 내어 돌봄의 국제적 연쇄를 발생시킴으로서 여성 노동 시장의 새로운 젠더 문제가 되고 있다(정미애

6) 여성의 노동력, 섹슈얼리티, 재생산능력이 선택적으로 진유되는 방식에 따라 여성은 하녀, 섹스워커, 엔터테인먼트, 처, 첩 등 다양하게 호명되며 차별적인 지위와 정체성을 갖게 된다. 여성의 노동력, 섹슈얼리티, 재생산능력을 선택적, 차별적으로 사용하는 전략들이 자본주의 지구화 시대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성의 노동력과 섹슈얼리티는 계층, 가부장적 가족 구조, 가족의 재생산, 전략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차별적으로 이용되었다. 왓슨(Watson 1991)이 기술하고 분석한 중국전통사회에서 하녀, 첩, 처 등은 여성의 노동력과 섹슈얼리티를 진유하고 사적/공적영역(가족/사회)에서 여서의 지위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개념이었다. 기본적으로 하녀가 섹슈얼리티가 배제된 노동력의 소유자로 규정되었다면 첩은 과도한 섹슈얼리티의 상징이었다. 첩의 집안에서의 지위는 가부장과의 성적인 관계와 재생산능력에 의해 매개되었지만 집안에서 주변적인 존재였다. 처의 지위는 조상과 친족과의 공식적인 관계에 의해 지지되고 유지되었다(윤형숙 130-131).

2006).

갓난 아이 및 육아, 노인수발 및 간병을 하기 위한 중국동포 입주자정부의 월급은 100만원 미만인 24%, 100-110만원인 52%, 111-120만원이 14%, 121만원 이상이 10%였다. 한편 내국인 입주자정부의 월급은 120만원-140만 원정도이고 첫머리가 있는 경우는 140만원 정도였다. 중국동포를 입주자정부로 고용한 경우는 주로 전문직 맞벌이 가정, 산모 도우미나 육아 및 노부모 간병이 필요한 가정, 이혼을 하여 자녀를 맡은 홀아버지 또는 취업을 한 홀어머니 가정이었다(유경선 2002). 또한 한국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의 직종이 생산직, 성산업,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집중됨으로써 제1세계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직종을 피식민지 여성에게 넘겨주는 가정주부화 현상을 보이는 것과 유사하게 한국 여성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직종을 가리지 않고 취업했던 것과는 달리 점차 이주여성에게 사회적으로 취약한 일자리를 넘겨줌과 동시에 다른 직종으로 취업이 확대되지 못하여 가정주부화 현상을 나타내며 이로써 내국여성은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외국여성들은 다시 내국남성과 내국여성의 뒷바라지에 해당되는 가사노동 유사 직종에 취업함으로써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의 식민화 현상을 보여준다(이수자 2004, 27-28).

여성들의 이주는 돌봄 노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위해 행해진다.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 오는 여성들은 베트남, 필리핀, 중국, 타이,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출신 등 다양하다.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지난 2006년 전체 결혼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화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국경을 넘어 가족을 이루게 되는 과정 속에서 언어의 차이,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⁷⁾ 경제발전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 출신 여성과 한국인 남성간 결혼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처리하는데 있어 불평등한 성별관계, 민족관계가 재생산된다. 제3세계 출신 외국인이자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 차이에 대한 무관심과 딱딱한 문화규범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요구는 이들의 고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김이선 2006, 110-112).

최근 지구화의 현상으로써 가장 보수적일 수 있는 농촌에서부터 단일민족의 신화가 깨지면서 이주여성들을 통한 다문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여성의 존재는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급변하는 지구화 시대에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자들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V. 결 론

이상 살펴본 것처럼 지구화는 한편으로는 생산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인류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혹한 경쟁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트린다. 이러한 경쟁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켜 계층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 지구화 현상은 인류에게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한 것이다.

7) 최근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된 각종 연구조사에 의하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임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 차별, 경험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이들을 향해 하루가 다르게 발표되는 각종 정책이 이주여성의 실제 삶에 어느 정도 녹아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김이선 2006, 111).

특히 지구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구화 논의에서 보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이 더 많다. 비록 지구화를 통해 세계시장이 여성에게 새로운 고용의 기회를 주어 고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와 여성들도 자유와 시민권을 누리고 정치적 참여의 기회도 확대되어 여성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있어 지구화의 모습은 여전히 가부장적 권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성불평등과 여성들 간의 계층적 차이를 증폭시키고 있다. 여성들은 여전히 지구화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동원될 뿐 지구화 과정의 핵심세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인 여성들의 노동 참여의 증가만으로는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지구화 과정에서 성불평등의 문제는 금융정책, 기업정책, 경제개발, 인력개발, 인권, 정치적 상황,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불평등을 수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지구화라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지구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지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조건들이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공유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지구화를 성평등 확장과 개인의 실존적 영역 및 시민사회 전반의 지적 전환을 가져오는 지속적인 도전으로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산업사회에서는 국가의 경쟁력은 자본이었지만 지구화,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인적자원이다. 따라서 인구의 반을 이루는 여성인력의 활용은 국가 경쟁력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정도로 중요하다. 지구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들은 여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며, 여성들은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는지, 여성들은 지구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설정과 정치적 전략을 위한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미경. 2004. “이주와 여성노동,” 『여성이론』 통권 11호.
- 김선옥. 2002. “한국여성정책의 변화 방향,” 『지구화와 여성 시민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이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젠더리뷰』 가을호.
- 노성숙. 2002. “문화산업의 지구화와 성불평등,” 『정보매체의 지구화와 여성』.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리처, 조지. 김중서 역. 2000. 『맥도널드, 맥도널드화』. 서울: 시유시.
- 문현아. 2006. “세계화와 여성이주: 한국의 필리핀 여성노동자들,”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 신은영. 2006. “세계화와 여성이주: 한국의 필리핀 여성노동자들,”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 양민석. 2004. “젠더 및 지구지역 관점에서 본 한국 애니메이션 문화산업과 여성노동,” 『변화하는 여성문화 움직이는 지구촌』. 서울: 푸른사상.
- 유경선. 2002. “중국동포 입주가정 실태조사,” <국회의원 김경천 자료집>.
- 윤형숙. 2005. “지구화, 이주여성, 가족 재생산과 홍콩인의 정체성,” 『중국현대문학』 제33호.
- 이상화. 2005. “지구화시대의 지역공동체와 여성주의적 가치,” 『지구화시대 여성주의 대안가치』. 서울: 푸른사상.
- 이수자. 2006. “글로벌 문화산업과 젠더 역학의 징후적 독해,” 『경제와 사회』 통권 제70호.
- 정미애. 2006. “한미 FTA에 따른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일본, 필리핀 EPA 사례를 통해서 본 한국에의 함의,”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 조 형. 2002. “공·사영역의 변화와 여성의 삶의 질,” 『지구화와 여성 시민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한국염. 2004. “한국 이주의 여성화 실태와 그 과제,”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워크숍 자료>.
- 헬트, 데이비드 외. 조효제 옮김, 2002. 『전지구적 변환』. 창작과 비평사.

- Adorno, Th. W. & M. Horkheimer. 1984. *Dialektik der Aufklärung, Gesammelten Schriften*, Bd. 3. (Frankfurt A.M.: Suhrkamp).
- Anastasakos, Kiki. 2002. "Structural Adjustment Policies in Mexico and Costarica," in Rekha Datta & Judith Kornberg ed., *Women in Developing Countries, Assessing Strategies for Empowerment*,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 Cavanagh, John et al. 2002. *Alternatives to Economic Globalization—A Better World Is Possible*, CA. Berrett-Koehler Publishers.
- Creevey, Lucy. 2002. "Structural Adjustment and the Empowerment(or Disempowerment) of Women in Niger and Senegal," in Rekha Datta & Judith Kornberg ed., *Women in Developing Countries, Assessing Strategies for Empowerment*,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 Desai, Manishi. 2002. "Transnational Solidarity: Women's Agency, Structural Adjustment and Globalization," Nancy A. Naples and Manisha Desai eds., *Women's Activism and Globalization: Linking Local Struggles and Transnational Politics*, Routledge.
- Ehreneich and Hochschild. 2003. *Global Wome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New York: Metropolitan Books.
- Elshtain, Jean Bethke. 1981. *Public Man, Private Woman*, Princeton Univ. Press.
- Elson, Diane. 2001.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 view from the kitchen,"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Chicago February.
-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rcourt, Wendy. 2005. "Gender and Economic Justice: Trends, Contradictions and Dilemmas," paper presented on Conference on Development, in Vrije Universiteit Brussel(17 Oct. 2005).
http://www.eurosur.org/wide/Globalisation/Harcourt_171005.htm.
-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Basil Blackwell.

- Heyzer et al. 1994. *The Trade in Domestic Workers*, London: Zed Books.
- Kearney, A. T. 2000. *Globalization Iedger*, Global Business Policy Council.
- Lister, Ruth. 2000. "Dilemmas in Engendering Citizenship," in Barbara Hobson, ed., *Gender and Citizenship in Transition*, (New York, Routledg.
- Mathews, Jessica. 1997. "Power Shift," *Foreign Affairs* 76. no. 5(Sep/Oct 1997).
- Moghadam, Valentine M. 2005. *Globalizing Women: Transnational Feminist etworks*, The Jo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onsen, Janet Henshall. 1999. *Gender, Migration and Domestic Servic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Mouffe, C. 1993. "Feminism, Citizenship and Radical Democratic Politics" in *Return of the Political*, Verso. 황정미 편역, 1995. "페미니즘, 시민권, 그리고 급진민주주의 정치,"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새물결.
- Narr·Schubert, *Weltökonomie. Die Misere der Politik*. 구춘권,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 (책세상, 2000).
- O'Connor, Julia S. Ann Shola Orloff and Sheila Shaver. 1999. "Liberalism, Gendered Policy Logics and Mobilization," in *States, Markets, Families: Gender, Liberalism and Social Policy In Australia, Canada, Great Britain and United States*, Cambridge Univ. Press.
- OECD, 1994. *Women and Structural Change: New Perspective*.
- Okin, Susan Moller. 1991. "Gender, the Public and the the Private," in David Held, ed., *Political Theory Today*, Stanord Univ. Press.
- Parrenas, Rhacel Salazar.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 Pateman, Carole. 1989. "Feminist Critiques of the Public/Private Dichotomy," in *The Disorder of Women*, Polity Press.
- Sparr, Pamela. 1994. "Feminist Critiques of Structural Adjustment," Sparr, Pamela, ed., *Mortgaging Women's Lives: Feminist Criques of Structural Adjustment*, London and New Jersey: Zed Books Ltd.
- Watson, R. 1991. "Wives, Concubines, and Maids: Servitude and Kinship in the Hong Kong Region: 1900-1940, Marriage and Inequality in Chinese Society," ed. Rubie Watson and Patricia Buckley Ebrey,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Young, Brigitte. 2001. "Globalization and Gender: A European Perspective," Rita Mae Kelly eds. *Gender and Globalization*, Lond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Abstract

Globalization and gender inequality in light of Feminism

Hee-Won Cho*

The world become closer and mutually dependent community over the boarder called globalization. An end of cold war, fast developing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nd each country's vigorous effort to the capitalism came to trigger the globalization affecting politic,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ffairs at rapid rate. Now, globalization is our reality closely associated with our everyday life regardless of our decision. Given this situation, what matters most to women is to create the new world which let women participate in and cooperate in the society with both gender's equality. To make it possible, it should be first understood what changes caused by globalization means to women and then set up the fundamental direction and political strategy for how women cope with the gender inequality appearing in the course of globalization.

■ 논문접수일 : 2007년 10월 31일, 논문심사일 : 2007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7년 11월 22일

* Research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